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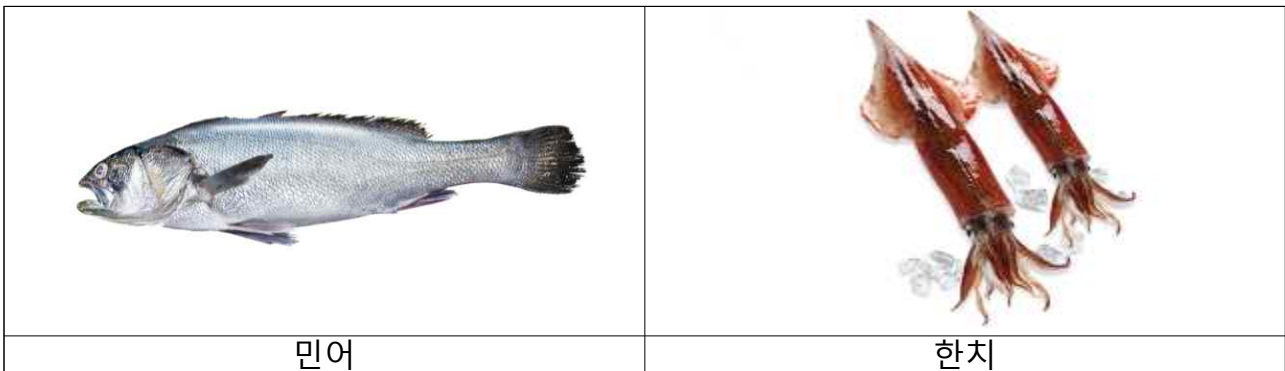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31.(월) 11:00,
(지면) 2023. 8. 1.(화) 조간

배포 2023. 7. 31.(월) 06:00

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민어·한치를, 어촌여행지로 군현·영암마을을, 해양생물로 매부리바다거북을, 등대로 도동등대를, 해양유물로 선박 제도용품을, 무인도서로 대오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민어, 한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더위에 잃은 기력을 되찾아 주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민어와 한치를 선정하였다.

민어는 <동의보감>에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여름철 냉해지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며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여름철 대표 보양 수산물로 꼽힌다. 민어는 살이 잘 부스러지지 않아 회, 찜, 전,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기름장에 찍어 먹는 민어 부레는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을 맛볼 수 있어 별미로 꼽힌다.

한치는 큰 몸집에 비해 다리가 ‘한 치(약 3cm)’밖에 안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무더위에 몸을 보양하기 좋은 수산물이다. 오징어보다 다리는 짧지만 그 맛은 오징어보다 ‘한 수 위’라고도 하는 한치는 일반 오징어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가 좋다.

이달의 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충남 보령시 군현마을 인천 옹진군 영암마을



군현마을 전망대



영암마을 장경리해수욕장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해수욕장과 갯벌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충청남도 보령시 군현마을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암마을을 선정하였다.

충청남도 보령시 군현어촌체험휴양마을에 있는 갯벌은 곱고 부드러운 펄과 자갈이 혼합된 갯벌로, 체험활동하기에 좋다. 마을에는 유아 이동용 바구니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갯벌에서 바지락, 박하지* 등을 잡는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후에는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다.

* 십각목 꽃게과에 속하는 민꽃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암어촌체험휴양마을은 두 곳의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갈갯벌인 농어바위체험장과 펄갯벌인 형제바위체험장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두 체험장 사이에 있는 장경리해수욕장에는 야영장이 있어 노을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8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매부리바다거북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매부리바다거북(*Eretmochelys imbricata*)을 선정하였다.

매의 부리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가졌다는 뜻의 매부리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 유일하게 등갑의 갑판이 겹쳐져 있어 다른 바다거북과 쉽게 구분된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주로 열대해역에 서식하며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연산호나 해변 등 부드러운 생물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먹이활동을 위해 국내 연안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드물게 관찰되기도 한다.

매부리바다거북의 등갑은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가공이 쉬워 과거부터 고가의 장신구나 보석류로 거래되어 왔다. 이 때문에 매부리바다거북은 불법포획 대상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7종의 바다거북 중 매부리바다거북을 포함한 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매부리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등대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등대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도동등대’를 선정하였다.

도동등대는 1954년 12월에 무인등대로서 첫 불을 밝혔다으며, 이후 독도 근해 조업 선박의 증가로 등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1979년 6월에 유인 등대로 전환되었다. 2007년에는 등대와 울릉도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까지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릉도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인 ‘행남(杏南)해안 산책로’는 도동등대에서 절정을 이룬다. ‘행남(杏南)’이라는 이름은 도동과 저동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구나무가 있어 살구 ‘행(杏)’ 자를 써서 행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도동등대에서는 국가어항인 저동항과 울릉도의 상징인 성인봉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동쪽에 있는 독도도 볼 수 있다.

한편, 울릉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오징어 축제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저동항과 천부항 등에서 개최된다. 이 외에, 전복과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가진 따개비로 만든 따개비밥의 맛도 즐겨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울릉군 관광문화 누리집(ulleung.go.kr/tour/index.do)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선박 제도용품



1980년대 | 37×16×5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HD현대중공업 기증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박 제도용품'을 선정하였다.

선박설계는 배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선박설계는 크게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단계로 나뉘며, 보통 한 척의 배를 설계하는 데 약 10~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HD현대중공업은 1980년대 선박설계를 할 때 사용한 각종 제도용품 12건, 23점을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기증하였다. 기증유물로는 선박을 설계할 때 참고한 시공요령서 등 참고도서부터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리측정기, 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문자와 기호를 입력하는 레터링기와 문형자, 곡선자, 컴퍼스, 레터링 펜, 문진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전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우리 해양산업의 역사자료로 영구히 보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조선·해운 자료들을 비롯한 어민, 어시장 상인들의 자료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강진의 천연기념물, '대오도'



대오도 전경



소오도 주상절리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한 '대오도(大鳥島)'를 선정하였다.

대오도는 고도 10m, 길이 약 200m, 면적 12,145m²인 작은 무인도서로, 마량항 서쪽 어선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대오도는 옛날에 까마귀 수천 마리가 떼로 날아와 섬을 뒤덮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오도 옆에는 '소오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두 섬 모두 검푸르게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어 주민들은 두 섬을 함께 '까막섬'이라고도 부른다.

대오도 섬 전체에는 상록수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높이 10~12m의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대오도는 소오도와 함께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2호>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으로 지정되었으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대오도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 바위군은 파도와 비바람으로부터 대오도를 지켜주는 천연 울타리로, 대오도가 강풍과 높은 파도를 막아주는 덕분에 마량포구를 예로부터 '바닷길의 요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오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관광 정보는 강진문화관광 누리집(<https://www.gangjin.go.kr/cult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 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8월
이달의 수산물

민어

a sciaenoid fish



민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셀레늄과 베타인류가 풍부하며 회, 찜, 튀김, 조림 등으로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Moisture)	(Protein)	(Fat)	(Ash)
79.4 g	18 g	0.8 g	1.3 g

에너지	칼슘	인	철
(kcal)	(Calcium)	(Phosphorus)	(Iron)
86 kcal	22 mg	178 mg	0.3 mg

레티놀	니아신	셀레늄	베타인류
(Retinol)	(Niacin)	(Selenium)	(Betaine)
9 µg	3.7 mg	29 µg	42.2 mg

8월
이달의 수산물

한치

cuttle fish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한치는
회, 구이, 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Moisture)	(Protein)	(Fat)	(Ash)
82.7 g	14.7 g	0.5 g	1.3g

에너지	칼슘	인	철
(kcal)	(Calcium)	(Phosphorus)	(Iron)
70 kcal	22 mg	239 mg	0.9 mg

라이신	아르기닌	EPA	DHA
(Lysine)	(Arginine)	(EPA)	(DHA)
1,124 mg	645 mg	141 mg	346 mg

참고 2

최근 5년간 민어, 한치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어	3,983	4,549	4,545	5,089	6,325
한치	3,777	3,042	4,146	3,789	4,817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07. 05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kg)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어	수출	626,618	2,971,579	801,165	268,480	237,669
	수입	25,807,121	23,816,422	20,264,753	17,558,798	16,055,474
한치	수출	자료없음				
	수입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07. 05.기준

어식백세
100세

8월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한치와 민어



이달의 수산물



한치



다리는 짧지만 맛은 일품인 한치!
탄수화물과 지방이 거의 없고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뛰어난 한치!

민어



여름철 제철 보양식 민어!
부드럽고 탄력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여름철 대표 보양식 민어!



해양수산부



아이와 함께 갯벌 생태계를 공부하기 좋은
군현어촌체험휴양마을(충청남도 보령시)

군현마을은 부드러운 갯벌에서 바지락, 박하지 등을 캘 수 있는 갯벌 체험이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어촌 여행지이다. 체험장 앞에 있는 군현 전망대에서 바다를 한눈에 볼 수도 있다. 체험 후에는 대천수산물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먹고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어 추억을 쌓기 좋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 체험 : 갯벌체험
- 먹거리 : 바지락, 소라, 박하지
- 주변 관광지 : 대천항, 대천항수산물시장, 대천해수욕장

충청남도 보령시 해방산길 533
☎ 0507-1400-4188 🌐 www.군현어촌체험마을.kr



2023년 08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두 갯벌체험장에서 조개를 캘 수 있는
영암어촌체험휴양마을(인천광역시 옹진군)

영암마을의 갯벌체험장은 두 곳이다. 농어바위체험장에서는 바지락, 형제바위체험장에서는 동죽을 캘 수 있다. 그 외에도 꽃게, 소라 등을 볼 수 있다. 인근 관광지로는 영흥도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국사봉과 조용한 바다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장경리해수욕장이 있다.

- 체험 : 갯벌체험, 갯벌 트랙터
- 먹거리 : 바지락, 동죽, 고동
- 주변 관광지 : 국사봉, 통일사, 장경리해수욕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서로446번길 46
☎ 032-888-5633 🌐 www.영흥도갯벌체험.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껍질이 싸인 화려한 등갑

매의 부리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가져 이름 붙여진 매부리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 유일하게 등갑의 갑판이 서로 겹쳐진 형태를 하고 있어 다른 바다거북과 쉽게 구분된다. 매부리바다거북의 등갑은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가공이 쉬워 과거부터 고가의 장신구나 보석류로 거래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등갑을 얻기 위해 불법포획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있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7종이 있으며, 그중 매부리바다거북을 포함한 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주로 열대해역에 서식하며 수심이 얇은 지역에서 연산호나 해면 등 부드러운 생물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먹이활동을 위해 국내 연안까지 이동한 모습이 드물게 관찰되기도 한다.



Eretmochelys imbric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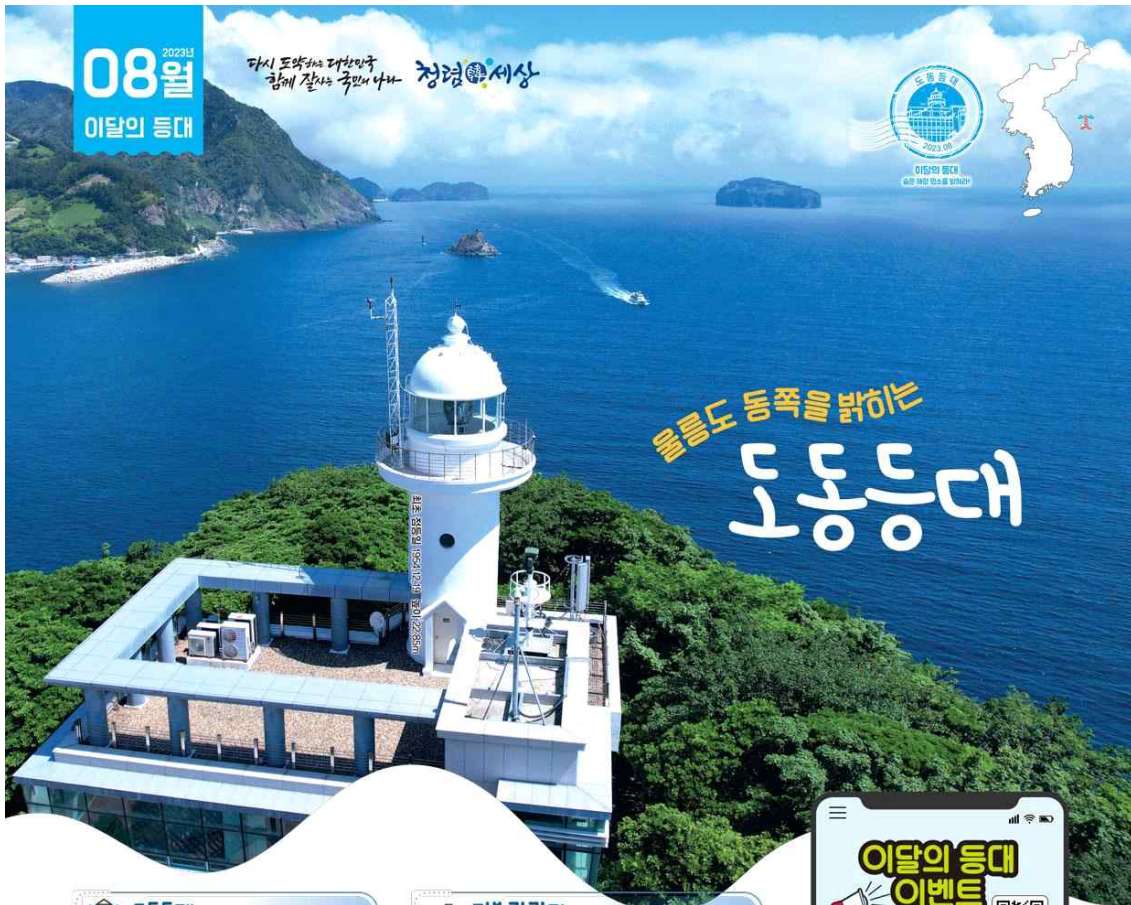
우리가 보호해야 할 매부리바다거북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도동등대

2023년 8월 이달의 등대로 선정된 '도동등대'는 울릉도의 동쪽 끝 행남말(杏南末) 끝단(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1)에 위치한다. 등대는 매일 밤 14초에 한 번 흰색 불빛을 반짝이며,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동등대는 1954년 12월 무인등대로 첫 불을 밝힌 이래, 독도 근해 조업 선박의 증가로 등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어 1979년 6월에 유인등대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주변에 등대와 울릉도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릉도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인 행남(杏南)해안 산책로는 도동등대에서 절경을 이룬다. 도동과 저동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살구나무가 있어 이 지역 사람들은 살구 행(杏)자를 사용해 행남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등대에서는 어업 전진기지로 국가어항인 저동항과 울릉도의 상징인 성인봉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동쪽에 있는 독도가 보인다.



울릉도 도동등대를 포함한 이달의 등대 정보는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관광 정보는 울릉군 관광문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

- 행남해안산책로
- 독도전망대(케이블카)
- 죽도(대섬)
- 울릉자생식물원
- 독도박물관
- 독도해상목우노래일
- 관음도
- 독도



주변 먹거리

울릉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곡식이 부족해,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을 함께 섞어 '밤을 늘려서 먹는' 방식으로 끼니를 해결해 왔다. 그중 따개비밥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접하는 메뉴이다. 삶은 따개비살을 볶다가 불린 쌀을 넣어 볶은 것에 따개비 물을 부어 지은 밥이다. 밥에 양파, 오이, 당근을 각각 볶아 곁들여 올리고 양념장을 곁들인다. 고소하면서 바다 향이 물씬 풍겨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울릉도에서 '따개비'는 싹갓조개로, 전북보다 작지만, 전북과 비슷한 맛과 식감이 나며,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조간대 갯바위에 붙어 서식한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3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3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마다 스탬프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원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 울릉도 오징어축제

날짜 2023년 8월 16일 ~ 18일

장소 울릉도(저동항, 천부항, 내수전)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08

서민제노영복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https://www.inmm.or.kr>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1980년대 | 37×16×5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HD현대중공업 기증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박 제도용품'을 선정하였다.

HD현대중공업은 1980년대 선박설계를 하며 사용한 각종 제도용품 12건 23점을 해양수산부에 기증하였다. 기증유물로는 선박을 설계할 때 참고한 시공요령서 등의 참고도서부터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리측정기, 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문자와 기호를 입력하는 레터링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형자, 곡선자, 컴퍼스, 레터링 펜, 문진 등을 기증하였다.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들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조선·해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데 전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우리 해양산업의 역사자료로 영구히 보존할 예정이다.

선박설계는 배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선박설계는 크게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단계로 나뉘며, 보통 한 척의 배를 설계하는데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민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선·해운 자료들을 비롯한 선원, 어민, 어시장과 항만근로자들의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영도의 시작,
생태와 경관의 보고

무인도서

2023년 8월
이달의 무인도서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강진의 천연기념물

대오도

고도 10m, 길이 약 200m,
면적 12,145㎡

천연기념물 제172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오도의 주상절리



해양수산부는 2023년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산191에 위치한 대오도를 선정하였다.

마량항 서쪽 어선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대오도(大烏島)는 고도 10m, 길이 약 200m이며, 면적 12,145㎡의 절대보전무인도서다. 대오도라는 이름은 옛날에 까마귀 수천 마리가 떼로 날아와 섬을 뒤덮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대오도 옆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은 이 섬을 소오도라고 부르며 대오도와 소오도를 합쳐 까막섬이라고 부른다. 이 두 섬은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2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으로 지정되었다. 대오도에는 10~12m의 후박 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이 외에도 돈나무, 팽나무 등 다양한 난대림 식물이 자라고 있다.

대오도가 있는 마량포구는 옛날부터 바닷길의 요지로 꼽히는데, 대오도가 파도와 비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대오도의 주상절리가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그 외 부분에는 침식을 막기 위한 돌 축대가 섬을 둘러싸고 있다.

대오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관광 정보는 강진문화관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f.go.kr | blog.naver.com/koreamof | www.facebook.com/mofkor/photos





전라남도



강진군
GANGJINCITY



강진군 관광정보